

“캐나다 운동선수 침으로 바로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통증전문치료 클리닉 아큐스포트 김보묵 원장



아큐스포츠 (AcuSports). Pain Rehabilitation Clinic. 특이한 이름의 클리닉이다. 통증 치료 전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클리닉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켈거리엔 그런 생소한 클리닉이 많다. 켈거리 SW 시늉물 건퍼판에 자리한 AcuSports 김보묵 (Bomook Kim) 원장을 만나 봤다. 스포츠맨처럼 키가 훤히 훑히는 젊은 분이다. 안내하는 receptionist가 아이스크림처럼 상냥하다. 클리닉 입구 카운터 뒤 액자에 한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Q : 클리닉 이름이 특이합니다.

A : Acu는 Acupuncture (침술)의 약자입니다. 클리닉에는 저를 포함한 세명의 한의사들과 카이로프랙터,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등 모두 6명이 통증치료를 위해 협업합니다. 카이로 프랙틱, 물리치료, 마사지 그리고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모든 근골격 병상을 치료 할 뿐만 아니라, 관절염 증 치료를 위해 Shockwave와 Cold Laser 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에 적용합니다. 내과 치료로 함께 보고있으나 외과 전문 클리닉이다 보니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을 갖고 있거나 운동을 하다 다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Q : 어떻게 이같은 통증전문 클리닉을 생각했습니까?

A : 저는 토론토대학에서 human biology (인간생물학)을 공부하고 밴쿠버로 가서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관심이 많



있었습니다.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 장애에 말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은 중의서인 황제내경에서처럼 오장육부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근골격계 치료부분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고민하던 와중에 한국으로 건너가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인 하상철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양의가 아닌 데도 한의사로 국가대표선수 팀닥터로 활동했습니다. 근골

격계 치료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고 2014년엔 하키국가대표선수 팀닥터로 세르비아에 다녀왔습니다.

Q : 한방중합병원 같은데요. 캐나다 환자들도 많이 옵니까? 침술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A : 환자의 70%정도가 한국입니다. 요즘은 현지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침술에 대해 대부분 생소해 합니다. 미

신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침을 놓을 때 사용한 침 다 시 사용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침의 효능을 본 분들은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Q : 제법 큰 클리닉으로 발전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한 겁니까?

A : 처음부터 이런 클리닉을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다

른 클리닉에서 일하다 근골격계 및 통증 전문 치료를 생각하고 독립하려 했을 때 동료 chiropractor (척추지압요법사)와 좋은 인연이되어 함께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한약, 침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인 한의사님, 현지에서 경험이 많은 Physiotherapist, 그리고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 하시던 마사지사분을 모시게 되어 통증 협업 치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통증의 기본 치료는 골반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어 자연치료를 이끄

는 것입니다. 각 선생님들께서 분야에 따라 뼈와 근육에 밸런스를 맞춰주어 자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료 하고 있습니다.

Q : 원장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A : 운영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운영자로서가 아닌, 의사로서 가장 큰 고민은 언제나 환자의 통증입니다. 치료 결과에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 한 상황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충입니다. AcuSports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증상에 뿌리를 치료하면서도, 가장 빠른 효과를 위해 각자가 공부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니 치료 후에 빠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빠른 치료 결과에 많은 캐나다 현지분들은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미라클'이라고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동양의학을 캐나다 현지분들에게 널리 알리는게 가장 큰 고민 일 수 있겠네요.

Q : 의료보험이 커버됩니까?

A : 기본적으로 한의나 침은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Alberta Health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나 회사보험이나 개인 사보험,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우 옵션에 따라 클리닉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Q : 보람있는 일이라면

A : 누구라도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환자의 통증 완화 일겁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협력하여 환자분들의 통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침을 생소해 하는 캐나다 분들이 제 치료에 효과를 보고 놀라워 하실 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Yul Kim 편집위원)

힘내세요! 한인 여러분. 코로나 재난 함께 이겨냅시다!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Association

캘거리 한인회
회장 : 구동현
주소 : 7008 Farrell Rd SE, Calgary AB T2H 0T2
전화 : 403-216-4600
이메일 : cka0607@gmail.com
웹사이트 : http://calgarykorea.com

캘거리한인노인회
Calgary Korean Seniors Association

캘거리 한인 노인회
회장 : 안길웅
연락처 : kilungahn@hotmail.com

자매 단체 노인 대학

캘거리 한인 여성회 / 코리아 아트 클럽
회장 : 고경숙
주소 : 3530 11a St NE #4, Calgary, AB T2E 6M7
전화 403-861-8231
kyoungsookko@gmail.com, heejo
웹사이트 : calgarykoreanwomen.com

캘거리 한인회 소속 자원 봉사 단체

도움 나눔
Calgary Volunteers

SNS와 온라인으로 소통합니다

캘거리 역사상 최대 규모 네트워킹 행사
♠ 청춘학개론 ♠

Instagram : dowoom.nanoom

캘거리 실업인 협회
Calgary Korean Unemployed Association

캘거리 실업인 협회
회장 : 박홍재
이메일 : kcba@live.ca
전화 : 403-258-1161
웹사이트 : www.calgarykcba.com

캘거리 한인양로원 건립 실업인협회도 후원합니다

캘거리한인장학재단
Calgary Korean Scholarship Foundation

캘거리 한인 장학재단
이사장 : 길이룡
전화 : 403) 567-0402
이메일 : hyunjucho@hotmail.com
웹사이트 : http://www.calgaryksf.org/

캘거리한인장학재단은 백만불 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유언장 서명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女인턴의 성상납' 기안84 만화, 어떻게래 청와대 청원까지

‘무능력한 여성 인턴 사원이 어느 날 회사 회식 후 대기업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는 회식 중 배 위에 조개를 올려두고 기다란 물체로 껌데기를 깨는 모습을 보여 상사의 눈에 들었다.’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다... "이 아기가 죽으면 저도 같이 죽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예요. 제게도 같은 나이의 딸이..." -사브리나 코엔 '소방관의 선택' 중에서.

인기 웹툰 작가 '기안84'가 네이버에 연재하는 '복학왕'에서 한 여성 캐릭터의 취업 과정을 이같이 연출해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장면에는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조개를 남성 성기 모양의 물체로 깨는 행위'가 나오는데, '남성 상사에게 성(性)을 상납한 뒤 정규직원이 됐다'는 식의 연출로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웹툰 복학왕 연재 중지를 요구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 무능력한 주인공, 최종 합격 과정에 무슨 일이 논란이 제기된 작품은 지난 4일과 11일 연재된 복학왕 광어인간 1~2화다. 지방대를 나온 여성 봉지은은 대



학 선배인 우기명이 재직 중인 기안 그룹에 인턴으로 입사한다. 그러나 봉지은은 보고서를 문서 프로그램이 아닌 메모장으로 작성하거나, 제출 지시를 받은 보고서를 한 달 가까이 작성하는 등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애교'로 상황을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려졌다. 인턴 봉지은이 속한 팀의 40대 남성 팀장은 봉지은을 향해 '어차피

자네 뽑을 생각 없다' '누가 널 뽑아준대?' '회사가 복지시설 이냐라고도 한다.

인턴 봉지은이 소속된 팀은 어느덧 마지막 회식을 하는데 장소는 조개구이집이었다. 메인 요리로 키조개가 나오자 팀장은 '손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봉지은은 자신의 배 위에 조

개를 얹은 뒤 기다란 물체로 조개 껌데기를 깨부셨다.

기안84는 해당 장면을 그리면서 내레이션으로 '학벌, 스펙, 사회성으로 무장한 다른 경쟁자들의 생존 전략 앞에, 봉지은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들이댔다'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벌이나 스펙, 노력, 그런 레

벨의 것이 아닌'이라고 적었다.

봉지은은 이 장면 이후 해당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것으로 나온다. 봉지은은 팀원과 입사 직후 제우도로 갔는데, 40대 남성 팀장은 우기명과 대화에서 '마지막 회식 이후 술에 취해 봉지은과 키스를 했고 이후 교체하는 사

이가 됐다'며 '내가 나이가 40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갔다'고 털어놓는다.

◇ 논란 일자 해당 장면 수정...비난 여론 들끓어

네티즌들은 기안84의 이런 연출에 대해 '여자가 성관계를 해 취업을 한다는 연출' '20살 많은 팀장에게 몸으로 로비를 해 취업했다는 암시'라며 여성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능력없는 여자를 뽑는가' '성별로 인해 채용에서 불이익을 얻는 사례는 여성이 훨씬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12일 오후 해당 장면이 일부 수정됐다. 봉지은이 조개를 깨는 모습은 대개로 바뀌었고, 자제도 배 위에 올려두는 것이 아닌 벽돌로 테이블 위 대개를 내려치는 것으로 고쳐졌다.

그러나 기안84에 대한 비난 여론은 계속해서 들끓고 있다. 그가 패널로 출연하는 MBC 나혼자산다 시청자게시판에는 12~13일 이틀 간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2000여건 이상 올라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복학왕의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인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6만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 기안84 이주노동자 비하 논란도...일각선 '표현의 자유'

기안84는 지난해 5월에도 작품에서 여성 장애인 비하와 이주 노동자 비하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가 사과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작품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향후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작가와 함께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화작가에게 도덕을 요구하는 것인가 '올바른 주제만 표현하는 게 작가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보다 페미니즘이 위에 있다는 건가'라며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안84 "조개 깨는 수달처럼 표현...불쾌감 드러 죄송" (전문)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36·본명 김희민)가 13일 (...3 페이지에서 계속)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김계욱 | 교육,선교 담당: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인예배,양육 담당 목사: 오상학

주 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예배		저녁 7시
토요일예배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떡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콩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콩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



(...2 페이지에 이어) 인기 웹툰 '복학왕'에서 벌어진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기안84는 이날 오후 웹툰 복학왕 304화 '깡어인간 2화'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웹툰 말미에 사과문을 추가했다. 그는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다시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더 많이 고민하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표현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과 11일 올라온 '깡어인간 1~2화' 원본에선 스펙이 부족한 여성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남성 상사와 성(性)상납을 한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성 인턴이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조개'를 배에 올려두고 기다란 물체로 깨는 행위가 연출되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사과문을 통해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든 극

중 인물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귀여운 수달로 그려봤다"며 "극중 인물이 물에 떠 있는 수달처럼 보이게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인턴이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교'로 상황을 넘어간다거나 40대 남성 팀장과 연애를 하는 식으로 그려졌다. 기안84는 "캐릭터가 귀여움이나 상사와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다시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일 자리를 구하기 힘든 봉지은이 귀여움으로 승부를 본다는 설정을 추가하면서, 이런 사회를 개그스럽게 풍자할 수 있는 장면을 고민하다가 귀여운 수달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달이 조개를 깨서 먹을 것을 얻는 모습을 식당 의자를 제끼고 봉지은이 물에 떠 있는 수달로 겹쳐지게 표현해보고자 했는데 이 장면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캐릭터가 귀여움이나 상사와 연애해서 취직한다는 내용도 독자분들의 지적을 살펴보고 대사와 그림도 추가 수정하였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려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원고 내 크고 작은 표현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해서 취직한다는 내용도 독자분들의 지적을 살펴보고 대사와 그림도 추가 수정했다"고 말했다. 기안84에 대한 비난 여론

은 심화되고 있다. 기안84가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기안84의 하차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2000여건 이상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웹툰 복학왕의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재석에게 거짓말 하던 카걸 부부, 결국 유튜브 단았다

방송 이후 허언 논란 확산 "영상·행보 잘못됐다" 사과문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 카걸·피터 부부가 모든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들은 재력과 네트워크를 앞세워 유튜버 활동을 해왔다. 구독자는 30만명에 달한다. 영국의 공작이 주최하는 파티에 참석하는 모습이나 슈퍼카인 맥라렌 공장에서 창업자 딸에게 안내를 받는 영상 등을 올린 인기를 끌었다.

◇tvN 유퀴즈 출연한 뒤 '거짓말·허언' 의혹 확산

이들은 지난 5일 방송된 tvN 유퀴즈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테슬라 지분 1% 보유설 등에 대해 과장이라고 하면서도 '초기 투자자'라고 강조했다. 피터는 "테슬라 설립 초기에) 일론 머스크 형님의 옆집에 살았는데, 대학생 신분인데도 대학교 등록금 정도를 투자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지분 1% 보유설은 인터넷에서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또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유재석과 조세호에게 페라리 디자이너 마우리치오 콜베의 그림을 선물했다. 이후 해당 장면을 직접 유튜브에 공개하며 "유재석에게 선물한 그림이 한국에 온다" 등 홍보에 활용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카걸·피터의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이들이 테슬라 초기 주요 주주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던 맥라렌 창업자 딸의 공장 안내 역시 과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사과문 올리고 유튜브 영상 모두 내려

카걸·피터 부부는 12일 유



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행 중인 논란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희의 영상과 행보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고 썼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카걸·피터 부부는 "시승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자동차가 저희 소유가 아님을 밝혔어야 했는데 채널의 콘셉트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보여주기에만 몰두했다"고 썼다.

이어 "구독자님들이 저희를 재벌이라고 여기시는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관심이라 여기며 그것을 제때에 정정하지 않고 묵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희수 늘리고 싶어 자극적 화법 썼다"

카걸·피터 부부는 "이것

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으나, 조회수를 늘리고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극적인 화법을 써서 여러분이 상상하게 했다"며 "민감한 부분들을 정정하지 않았다. 모두 저희의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30만명의 구독자 중에는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 자신의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도 많았다. 이분들이 그동안 응원해주셨던 것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피터·카걸 부부는 "좋은 영향력만 드러야 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저희의 깊은 뉘우침과 진심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9가지 의혹 해명했지만... '구차하다' 비난 쏟아져

카걸과 피터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설, 제주맥주 지분 투자 의혹 등이다.

이들은 tvN '유퀴즈'에 나와 '테슬라 1% 지분 보유설은 과장'이라고 하면서도, '초기 투자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터는 "(테슬라 설립) 초기에 일론 머스크 형님의 옆집에 살았는데, 대학생 신분인데도 대학교 등록금 정도

를 투자하게 됐다"며 "1% 매입은 인터넷에서 와전된 것이다. 더 갖고 싶다"고 했다.

제주맥주 관련 의혹은 카걸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맥주 회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며 국내 수제맥주

매장 앞에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이다.

카걸과 피터는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 "(주식) 1% 매수설은 저희가 언급한 적이 없었고, 인터넷에서 과장된 부분"이라고 했다. 제주맥주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했다. 소규모 투자임에도 제주맥주에서 '주주님'이라고 이름을 새긴 컵을 준비해주셨다"며 "이에 들떠 영상으로 만들며 소위 '드립'으로 대주주,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장난섞인 반어법 표현을 자막으로 삽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 규모가 작았던 당시에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 경솔한 행동이었으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카걸과 피터의 해명에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내놓고 자기극을 벌인 것"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 스페이스 렌트

한인 상권의 중심지인 고려플라자에서 새로운 렌트를 구합니다.

- 면적 : 1) 856 sqft, 2) 1,050 sqft
- 업종 : 한의원, 학원, 클리닉, 치과, 사무실, 네일샵, 마사지샵 등
- 문의 : 최순일 부동산, (403) 479-1472

'금주의 교회'

"오늘의 말씀묵상"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캘거리하늘가족교회
<http://gajok.onmam.com>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30
 은혜롭고 풍성한 하늘가족 밥상에 초대합니다. 따뜻한 밥 한끼, 함께해요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월요일-금요일]
 무료 ESL Cafe 월2회 [문의-우희준 587-575-3507]

▶ YouTube **캘거리하늘가족교회** 검색
 하시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419 Northmount Dr. NW Calgary T2K3H7
 [하이우드교회 별관] 차량운행 지원합니다.
403-804-8815
 담임목사 이기형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13-14



캘거리 교역자 협의회

Korean Pastors Association of Calgary

회장: 김태형 목사 (빛과 사랑의 교회)
 총무: 이경민 목사 (캘거리 제일감리 교회)
 회계: 조성호 목사 (에어드리램프 교회)

문의: 587-432-0691 (총무)

캘거리 외 지역 교회

에어드리 램프 장로교회
 레드디어 한인장로교회
 레드디어 한인교회
 레스브릿지 한인교회
 밴프 한인교회

하나님의 만민이 있는 곳 **캘거리순복음중앙교회**
 Calgary Central Full Gospel Church

▶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 E.M.예배: 오전 11시
▶ 청년부예배: 오전 11시	▶ 주일소그룹: 오후 1시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초등부예배: 오전 11시	▶ 금요일예배: 저녁 8:00
▶ 영유아부예배: 오전 11시	▶ 화~금 기도회: 새벽 5:20

†담임목사: 김원호
 †부서별 목사: EM Paster: Dennis (403-462-9531)
 청년부·초등부 목사: 이수영 (587-577-1635)
 중등부·유치부 전도사: 정예균 (403-969-8275)

주요 시설: 주일학교시설, 체육관시설, 대형도서관 (개방시간 주일 12~5pm)
 ▶ 이민 유학 워킹비자 초기정착서비스 ▶ 주일 중식 제공
 Ride 전화주세요. (주일예배)

주소: 2210-28st SW Calgary AB T3E 2H6
 전화: (교회)403-819-9206 (목사관)587-352-1733
www.calgarychurch.org / 카톡 ID: loveothers

CNBC Canadia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캘거리우리교회
 Calgary Woori Church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 예배안내

모임	시간	비고
주일 대 예배	주일 오후 3시	Youtube 실시간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전 11시	Youtube 업로드
119 기도회	화요일-토요일 오후 9시	Youtube 실시간
큐티모임	목요일 오전 10시	Line
THINK	주중 해당시간	Zoom
일대일제자양육	주중 해당시간	Zoom

▶ 캘거리 우리교회 검색

77 Street SW & Weston Dr SW, Calgary, AB
 ☎ 403)926-2025
cafe.naver.com/calgarywoorichurch

캘거리 사랑의 교회
 Calgary Sarang Presbyterian Church

영혼의 울림이 있는 예배

예배 시간	시간
주일예배 (영어동시통역)	1:30 PM
수요성경공부	7:30 PM
유초등부	1:30 PM
중고등부	3:30 PM

▶ '유튜브' 실시간 예배방송

▶ 담임목사 손승희
 유초등부 경미옥
 중고등부 김신희

50 Millrise Blvd SW Calgary AB T2Y 2E7
 403-796-8910 / ezrason12@gmail.com
<http://cspc.kr> (설교영상) / 코크레인 차량운행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렘 2:13)

캘거리 생수 교회
 Calgary Living Water Church

◆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시간
주일 예배	오후 1:45
주일학교 / 중고등부	오후 1:45
주일 성경 공부	오후 3: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3:30
삼일예배 (목요일)	저녁 7:00
토요일 오전 기도회	오전 7:00

2608 1 Ave NW T2N 0C4 403) 660-3237
calgary.onmam.com 담임목사 오윤명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캘거리 중앙교회**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algary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담임목사: 고철주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주일학교: 오후 2시
 청년/학생부: 토요일 오후 6시
 금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6시

address: 5010 Spruce Dr. SW.
 Tel: 403) 992-1004
 Homepage: caljungang.onmam.com
 *남쪽 Edworthy Park 입구에 있습니다.

캘거리 지구촌 교회
 (Calgary Korean Global Mission Church)

우리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정복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감 없이 믿으며,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Puritan 신앙의 규범을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예수,
 오직성경, 오직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며, 모든 사람을
 귀하게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지길 소망하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시간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30
주일 학교 - 주일	오후 1:30
수요교리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청년모임 - 금요일	오후 7:00

담임목사: 우정수 주소: 7251 Sierra Morena Blvd. SW.
 전화번호: 587-437-7749 Calgary AB, T3H 3N5
 E-mail: aderk77@gmail.com (Richmond Hill Baptist Church)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교회 (엡 4:11-12)

캐나다장로회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CALGARY KOREAN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30분	제 1성전
†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30분	제 1성전
† 주일예배 3부	오후 1시 30분	제 1성전
† 주일영어예배	오전 11시 30분	제 2성전
†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제 1성전
† 아 동 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제 1성전
† 청 소년 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제 1성전
† 청 년 부	금요일 오후 7시	제 1성전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제 1성전
† 토 요 기도회	오전 7시	제 1성전

담임목사: 최창선
 부목사: 김종화/강환세 / 영어목회전도사: jin 김
 교육목사: 박창영 / 교육전도사: 윤수정, 임재용, 설의영

1112-19Ave NW., Calgary AB
 Tel. 403)685-0000 www.calgarykpc.org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사랑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 신앙의 순결, 순교정신, 보수신앙, 세계의 복음화를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을 생활원리로 삼고 있는
 캘거리 땅에 세워진 주님의 피로 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임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2:00
 학생모임: 주일 오후 02:00
 청년모임: 주일 오후 02: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07:30

담임목사: 김 태형

2433 26 Ave SW Calgary AB T2T 5Y5 (Richmond & Knob Hill Community Centre)
 Phone: 403-708-8765, E-Mail: kite1009@hotmail.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캘거리 베헤ل 장로교회**
 KOREAN BETHEL PRESBYTERIAN CHURCH OF CALGARY

예배 모임 안내

-주일 오전 1부 예배: 오전 9:40	-토요 기도회: 오전 7:00
-주일 오전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45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시	-학생부 예배: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담임목사: 이재영 (jaeyounglee0814@hanmail.net)
 부 목사: 손성태
 교육 전도사: 오성미

3403-19th Ave. S.E. Calgary AB T2B 0A6
 Tel: 403-462-0135/403-263-0330
www.calgarybethel.com

주일 Pickup: downtown Macs store (7th Ave 8th st. SW) - 오전 10:30

평신도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

캘거리 열린교회

□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시 30분
 □ 주일 장년 예배, 오전 11시 30분
 □ 주일 학교 예배, 오전 10시 30분
 □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 담임목사 김경수(성서학 박사, Dr. Prince) / 부목사 김권호

★ 주일학교예배장은 1분 거리에 있는 Cranston School의 Change Church에서 드립니다. 예배 동영상은 YOUTUBE, JACE SHINE에 있습니다.

교회주소: 105 Cranston Way SE Calgary T3M 1E9
 전화번호: 403-217-3976 / kimjoshua248@gmail.com

캘거리제일감리교회

KFMC

Korean First Methodist Church in Calgary

"건강한 믿음, 건강한 생활"

<요3:12> "사랑하는 아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편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어린이예배 2시, 성경읽기 2시, 금요기도회 2시, 찾아가는 예배 7시

담임목사 이경민
 주소 1638 30ave. SW
 전화 587-432-0691
 홈페이지 calgarykm.com
 이메일 kfmc.calgary@gmail.com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CALGARY CHODAE CHURCH

주일예배: 오후 1:30 (King's Kids(교회학교) 주일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6시(화-금))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교회창립일: 2011년 9월 11일 •

성가는 이: 이현구 목사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초대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말씀 부르는 기도, 성경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시는 길: 5940 Lakeview Dr. SW, Calgary AB 587-718-0921 / www.chodaechurch.ca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

캘거리 늘푸른 한인교회

Korean Evergreen Church of Calgary

담임목사: 조영석 / 전도사: 김광철 김미란

<예배안내>

† 주일대예배	오후 1시 30분	Northmount Church
† 주일학교	오후 1시 30분	Northmount Church
† 토요일기도회	오전 7시 00분	Northmount Church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Northmount Church
† 목장모임	각 목장별로	

451 Northmount Dr. NW Calgary, AB T2K 3H8
 tel: 403-217-2758 / cell: 403-554-1412
 www.calgaryegc.org

캘거리성결교회

Calgary Korean Evangelical Church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 일 예 배: 오후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00
 토요일기도회: 아침 7:00
 어린이주일예배: 오후 1:45
 청소년주일모임: 오후 3:30

담임목사: 김효일
 전도사: 손장희

1102 23Ave. NW (St. Giles Church) ☎ 403-540-0989
 cafe.naver.com/ckechurch

캘거리산돌교회

Calgary Livingstone Church

담임목사: 최영우

홈페이지: www.livingstonech.com
 전화번호: 403-256-9056, 403-619-6119
 주 소: 3527 Boulton Toad NW (Hope Luthern Church)

<집회시간 안내>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주일날) 오후 1:30	산돌교회
주 일 학 교	(주일날) 오후 1:30	산돌교회
삼 일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산돌교회
새벽기도회	(토요일) 아침 6:00	산돌교회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선교센터
청년학생회	(금요일) 오후 6:00	다운타운

기도하는 교회 ◆ 선교하는 교회 ◆ 영적 성숙을 이루는 교회

캘거리한인침례교회

Calgary Korean Baptist Church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1부	9am	중고등부	11am	친교실	주 중 모 임	새벽기도회	화-토 (6am)
	2부	11am	초등부	10:45am	소매매실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금 8pm
	청년부	2pm	유치부	11am	유치부실	AWANA/한글학교	주 일 오후 1시30분	금 6:45pm

부목사: Jodie Kim(중고등부) / 전임전도사: 김한승(청년부)
 파트전도사: Jisoo Park(초등부) / Esther Lee(유치부) / 홍하주(한글학교)

805 77 Ave. SW Calgary, AB T2V0T2 (403) 255-7080
 www.calgarykb.net

담임목사 김형석
 Senior Pastor Rev. Hyung Suk Kim

해외한인장로회

캘거리영락교회

담임목사: 송영배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주 일 오후 2시
청 소 년 부	주 일 오후 2시
아 동 부	주 일 오후 2시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5시30분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중보기도회	주 일 오후 1시30분

교육전도사: 서성식, 오소라

주 소: 3704 - 37 Street SW, Calgary, AB T3E 3C3
 전화번호: 교회 403,969,3659 | 목사관 403,241,3659
 홈페이지: www.calgarych.org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눅 8:10

주일예배: 낮 12시 반

수요저녁예배-오후7시
 수요 낮 성경공부반-오후1시
 목요 저녁성경공부반-오후7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열심교회
 담임목사: 김홍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캘거리제일장로교회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algary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담임목사: 강진우
 부교역자: 최요한, 김희곤, Aaron Braaksma
 파송전교사: 최광진, 정명순

■ 예배안내

장년부	교회학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 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셋째주 오후 8시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특별새벽기도회: 첫째주 월-토 오전 6:00	

1411 69St. SW Calgary AB T3H 3W8 Tel:403-273-8665 Fax:403-273-8298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Airdrie Lamp 장로교회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후 2:30 유 치 부: 오후 2:30
 학생부: 오후 1:50 토요일 새벽: 오전 6:30

Lamp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2015년에 에어드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조성호]

주소: 2964 Kingsview Blvd SE, Airdrie T4A 0C9 (King's Court Church)
 (연락처: 403-903-3873)

심레드디어 한인교회

Red De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6

예배안내

주 일 예 배	오후 1:00	예배실
수요 모임	오후 6:00	소그룹실
토요 아침기도회	오전 7:00	예배실
Youth Group	오후 1:00	소그룹실
주일 학교	오후 1:00	교육관

담임목사 김정민 403 872 3267
 rdkcc316@gmail.com
 www.reddeerkoreanchurch.ca
 12 Stanton Street, Red Deer, AB, T4R 0B8

레드디어 한인 장로교회

Red De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4718 50St. Red Deer, AB, T4N 1X2

담임목사: 정태용 403-891-3906
 davandjon@gmail.com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생도가 되어, 가정, 교회, 열방에서 사명자로 세는 교회

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금요성경공부: 오후 6시	문화교실
주일학교: 오후 1시	토요새벽기도: 오전 6시	월요일 ELS 준비반: 오후 7시 - 교회
수요일예배: 오후 7시		화요수영교실: 오후 8시 - Nexsource Centre

"기르지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제자삼는 교회"

레스브릿지 한인교회

Lethbridge Korean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박준호 (403-929-0969)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청년부 예배: 오후 2시
 학생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장년부 성경 공부: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성경 공부: 주일 오후 2시

715 13St, North, Lethbridge, AB, T1H 2T2
 403-942-3053. E-Mail: mokssa@yahoo.co.kr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밴프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anff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 모임안내 ●

- 주일예배: 오후 6:00
- 유, 초등부: 주일 오후 7:00
- 경배와 찬양 집회: 목요일 오후 7:30

P.O. BOX 1167 Banff Ave & Wolf St. Banff, AB, T1L 1B1
 http://cafe.daum.net/canadabanffchurch

담임목사 최성은
 Senior Pastor Rev. Sungun Choi
 (403-431-2507)

<종교칼럼>

조영석 목사
늘푸른 한인교회 담임



“성경을 사랑합시다” (2)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명기 17:18-20)

“리더(Leader)는 리더(Reader)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좋은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에 있어서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은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읽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시대를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리더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17년에 한 출판사에서 “대통령의 책읽기”(대통령에게 권하고 시민이 함께 읽는 책읽기 프로젝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대통령과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26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박지원의 열하일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 나시르 가에미의 광기의 리더십, 넬슨 만델라의 만델라 자서전, 맹자의 맹자강설 등 이 소개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대통령이 읽어야 할 책으로 어떤 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물론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이 책들의 목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1809-1865)보고 추천하라고 했으면 단연코 일순위에 성경의 이름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링컨의 정식 학교 교육은 모두 합쳐서 1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책읽기를 좋아해서 먼 곳 까지 가서 책을 빌려 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가 가졌던 책은 성경책 한 권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열 살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야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12만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 보다 이 한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 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성경을 늘 읽고 사랑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과 실패가 반복되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61년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작고 낡은 성경책을 펴고 그 위에 손을 얹은채 선 서를 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링컨은 전도자 무디가 자신의 교회학교에 그를 초청했을 때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잘 읽고 순종하면 언젠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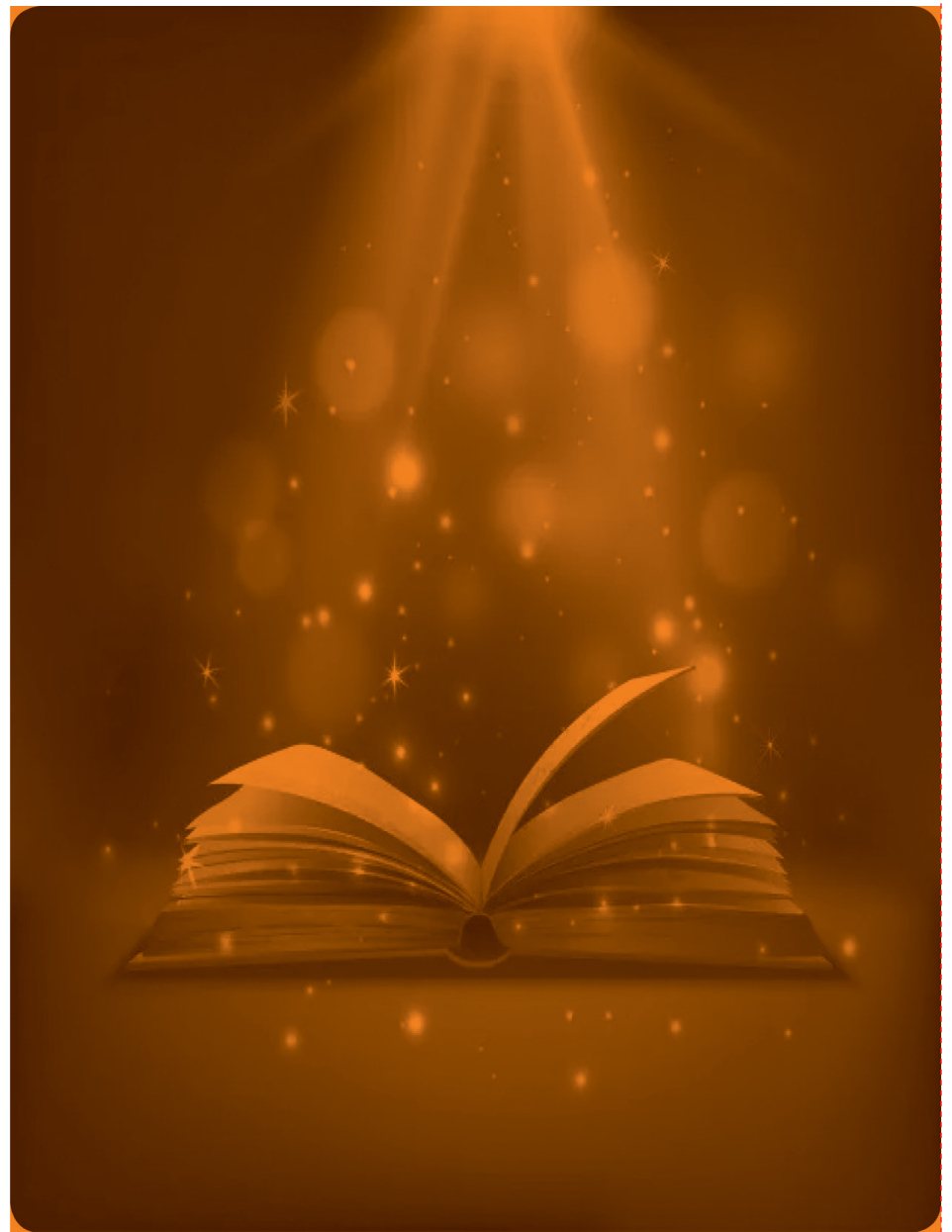
링컨은 정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왕과 대통령에서부터 노인과 소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누구나 읽어야 하고 누구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주는 지침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됨,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만하게 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19절)

성경은 시간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안 읽고 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좀 뜨거울 때는 읽



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교과서입니다 학생이 만약 자기 마음에 안 내킨다고 교과서를 잘 안 읽는다면 그는 좋은 성적을 얻기 가 힘들 것입니다

성경은 왕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읽어야 할 최고의 책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이기에 평생에 늘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읽고 사랑해야 할 책이요 순종할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1:8)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밤낮으로 아침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할 말씀이 성경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절대적 리더인 모세가 죽고 이제는 자기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위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미래를 향한 영원한 행복의 약속이 있고 무서운 심판의 약속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 한 것처럼 우리 모두다 “왕 같은 제사장들”(벧전2:9) 이기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에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 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높고 귀한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높고 귀한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까이 두고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묻고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은바 은혜와 사랑을 평생에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 복지 패러다임



김요컬럼 by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효율-형평, 혁신-안정 간 균형과

세계화-지역 간 균형을 찾는게

코로나 위기 맞은 인류의 과제

일자리 만들겠다는 한국 판 뉴딜

구호를 넘어 실천계획이 되길

세계근대사를 살펴보면 정책이 균형을 상실하면 위기가 발생하였고, 위기 대책은 새로운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대표되는 자유시장경제는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은 경제대공황이라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이른바 '뉴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케인스 경제학에 근거한 재정 확대책은 시장과 정부 기능 간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였고, 둘째, 금융기관



의 활동을 규제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은 금융 시장의 활력과 안정 간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었으며, 셋째,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은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간 균형을 추구하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 역시 1929년 경제 대공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사회적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0년 이후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개인 간은 물론 국가 간 임금 격차와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술혁신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을 잘 활용하는 개인 및 국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개인 및 국가 간 임금 및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코로나 19 위기는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제'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는 혁신과 안정 간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과 이를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다. 일찍이 경제학자 슈페터는 시장경제의 특징을 지속적 혁신과정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다. 이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지금까지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 되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나 사회 전체로는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나 파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산업에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새로운 코로나 19 위기를 맞은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다.

셋째는 세계화와 지역화 간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세계화 추세는 IT 혁명으로 온 라인 거리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금융시장이 새로운 세계화 물결의 진

원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급진전을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위기는 세계화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어렵게 됨으로써 국제교역과 협력에 기반한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나, 대기오염 문제는 경제활동 둔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위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영국 존슨 수상의 '브렉시트' 등 고립주의 추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체 복원 등 지역화에 대한 수요 역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크게 디지털 뉴딜(재정투자 44.8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재정투자 42.7조원, 일자리 65.9만개), 안전망 강화(재정투자 26.6조원, 일자리 33.9만개)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및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정부 차원의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가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책'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둔 '한국판 뉴딜'이 단순 '정치구호'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BBQ 레스토랑



짜장면

~~\$10.99~~ \$7.99
Regular 시니어(65+) 디스카운트

*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디너 올유캔잇 주문시
전체 Bill에서 추가 10% 할인



All You Can Eat Shrimps Promotion

(Dinner 올유캔잇 주문시)

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34.00 -> 29.89/person happy away 가격 적용

Korean BBQ Tel: (403) 243-7970
All You Can Eat <https://www.instagram.com/seoulbbqcalgary/>
 4336 Macleod Trail S.W. Calgary,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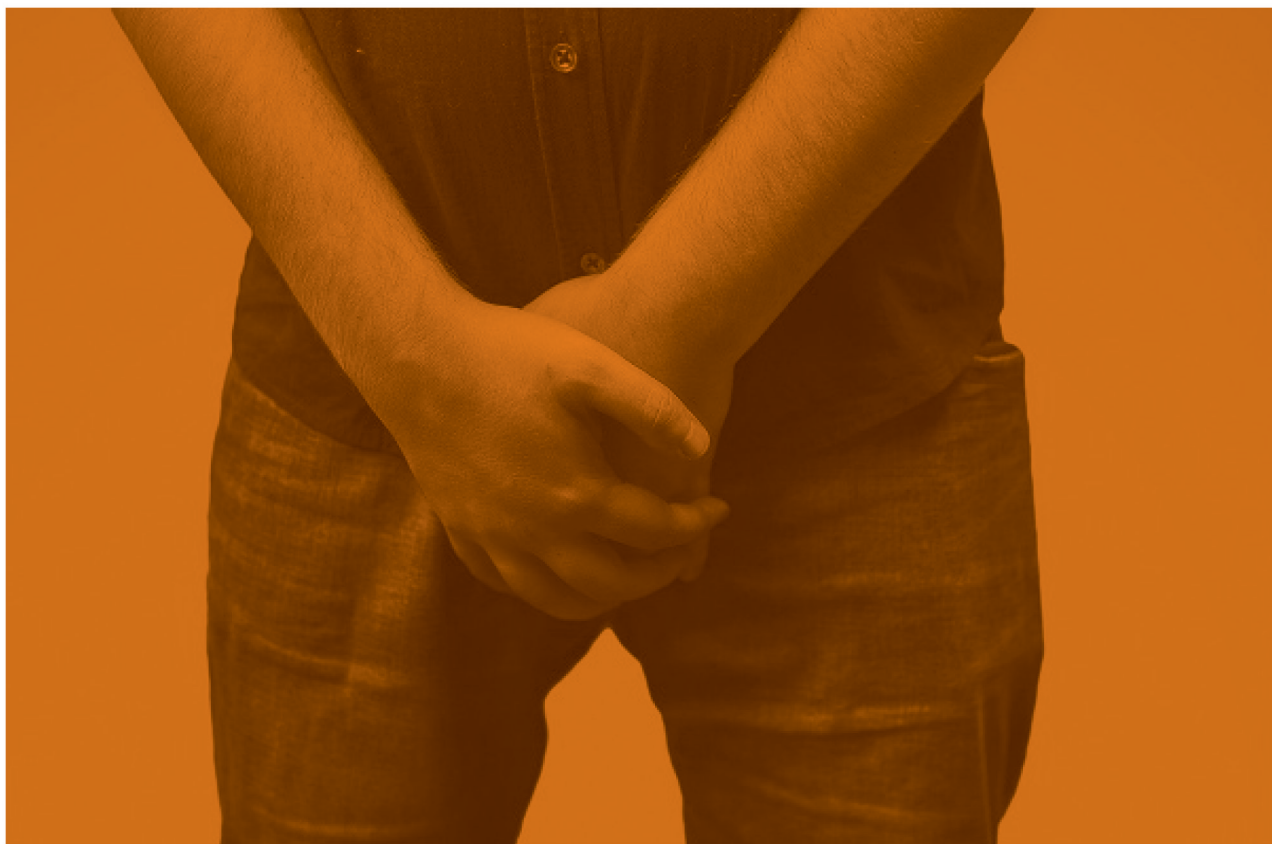
전립선암 빨리 진단해야, 치료 가능... 심하면 고환 제거까지?

남성들의 전립선암 유병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 평균 연령은 60~70대로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중앙혈액내과 김홍준 교수는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지만, 진단이 늦어질수록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고환 제거 혹은 약물 치료 필요

전립선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진단할 때는 초음파, MRI, PSA(전립선특이항원) 수치, 암조직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연령별 기대여명을 고려해 추가검사나 치료를 권고한다. 치료의 형태는 암의 범위와 전이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같은 전립선암일지라도 예후나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홍준 교수는 "실제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형태를 살펴보면, 적극적인 치료가 제외된 '능동적 감시' 혹은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립선암이 국소적일 때는 수



술 이후 필요에 의해 보조적인 요법인 방사선·호르몬 치료를 활용하는 반면, 재발 혹은 전이가 되었다면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치료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안드로겐' 남성호르몬에 의존하며 증식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수술(고환제거) 및 약물 요법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호르몬 치료'라고 일컫는다. 치료효과 면에서는 두 가지 모두 비슷해 대부분의 환자는 약물요법을 선호한다.

운동, 주기적 골밀도 검사 해야

대개 1~2년간의 호르몬 치료에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후에는 저항성으로 인해 1세대 호르몬 치료와 차세대 호르몬제,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전립선암은 타센 계열의 항암제에만 반응할 뿐, 대부분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다.

김홍준 교수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 "치료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체지방 증가와 함께

심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며 근육량 감소와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외에도 열감, 홍조,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호르몬 치료에 의한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행 전과 1년 뒤, 그리고 이후 2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보충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전립선암은 진단이 늦어질수록 완치율이 가파르게 떨어진다.

사에서 병의 진행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PSA 수치가 높아지면 생화학적 재발로 판단, 추가 치료를 고려한다.

전립선비대증 환자 '이것' 먹으면 소변 더 안 나와

전립선비대증은 국내 60~69세 남성 약 51%가 호소하는 흔한 질환이다. 고대안산병원 비뇨의학과 태범식 교수는 "남자가 일생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받을 확률은 10~25%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조직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인 요도를 압박해 방광에 소변이 정체하는 이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나이 든 남성에서 주로 나타나고, 남성 배뇨 장애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전립선비대증 초기에는 소변 횟수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밤 수면시간 동안 두 번 이상 일어

나 숙면을 못 하고 소변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 잠지 못한다. 소변을 다 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보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야벳배나 향문과 음낭 사이 회음부가 불편하거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태범식 교수는 "악화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만성 요폐가 생기고 심하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해 방광 기능이 회복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물게는 방광결석이나 콩팥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면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와 전립선 특이항원검사, 콩팥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직장을 통한 전립선 크기측정 및 초음파검사, 요속 및 잔뇨량 측정, 증상점수기록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결정한다. 초기에는 배변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소화가 잘되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자극성이 있는 조미료, 탄산음료, 알코올 등은 피한다. 태 교수는 "특히 알코올은 전립선 울혈을 더욱 심하게 해 요도 폐쇄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증상이 심하면 커진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태범식 교수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예방하려면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고 소변을 오래 참지 말아야 한다"며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배뇨 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신욕도 도움이 된다. 태 교수는 "전립선비대증이 전혀 수치스러운 병이 아니라라는 점을 알고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치매 안 걸리려면

아침엔 '이것' 저녁엔 '산책'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병은 치매다. 하지만 치매는 생활습관에 따라 발병 여부가 갈린다.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노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고령이라도 생활습관에 따라 뇌의 퇴화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지널(JAMA)에 발표한 바 있다. 아침·저녁에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뇌 건강 돕는 습관'을 알아본다.



중불에서 2시간 정도 더 풀린다. 이후 1시간 동안 그대로 식힌 뒤, 체에 면 보자기를 대고 거른다. 걸러낸 차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다. 입맛에 따라 유자청과 소금을 조금 넣고 1회에 100ml씩 하루 두세 잔 정도 마신다. 따뜻한 게 마셔도 좋다.

저녁엔 산책으로 뇌 강화

일과를 끝낸 후 저녁에 산책하는 것도 방법이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때문이다. 뇌세포와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때 산소와 영양분이 뇌의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전해지려면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60~9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 소울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 등 생활습관을 바꾸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밤엔 명상으로 뇌에 휴식 줘야

명상하면 치매의 원인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돼 기억 회로에 악영향을 끼친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중력이 낮아지는 수준이지만 점차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20~25분 정도 명상해서 뇌에 휴식을 준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명상하면 기억력·주의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요히 내면에 집중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과 몸을 단단히 할 수 있다.

김홍준 교수는 "빠는 전립선암의 가장 흔한 전이 부위로 영상 검사를 통해 전이된 병변의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골 스캔의 2+2법칙(최소 두 개의 새로운 병변이 보인 후 또다시 최소 두 개 이상의 새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 치료반응 평가에는 영상학적인 평가가 아닌,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개념이 활용된다. 치료 이후 영상 검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

"메르스 백신 살짝 고쳐 코로나 백신 개발"

러시아 국부펀드인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가 최근 자국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두고 "기준에 개발해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을 살짝 고쳐(slightly modified) 개발했다"고 밝혔다. RDIF는 이번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개발에 자금을 투자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다음달부터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이 우리로서는 행운"이라며 "당초 메르스 백신이 배포 직전 상태까지 개발이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년간 개발해온 메르스 백신을 살짝 고쳐(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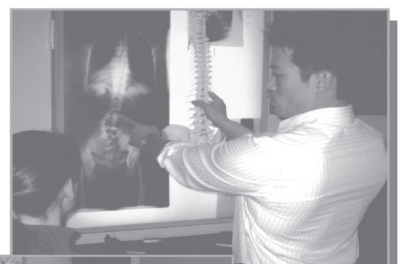
러시아 국부펀드 RDIF는 이번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개발에 자금을 투자했다.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다음달부터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제까지 10억회 분량의 백신에 대해 구입 요청이 20개국에서 온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백신은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보건당국은 "러시아 백신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세웅 척추신경 교정의료원

DR. MICHAEL YOON CENTURY CHIROPRACTIC WELLNES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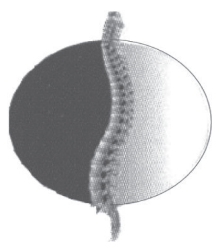


『뼈 마디마디가 아프십니까?』

옛말에... 굴러가는 돌속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운동이나 교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이상에서 오는 증세:

- 두통과 목이 뻐뻐하고
-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저리고,
-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오고
- 관절마다 신경통이 오고,
- 두통후 각종 후유증이 오는 것 등이 척추신경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교통사고 = 척추
운동사고 = 관절
직장사고 = 근육

교정

건강비법(秘法)은?

깨면·쾌식·쾌변이 되어야 합니다. 잘먹고 잘자고 잘배출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체의 몸통은 관절마디마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운동과 교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 줌으로서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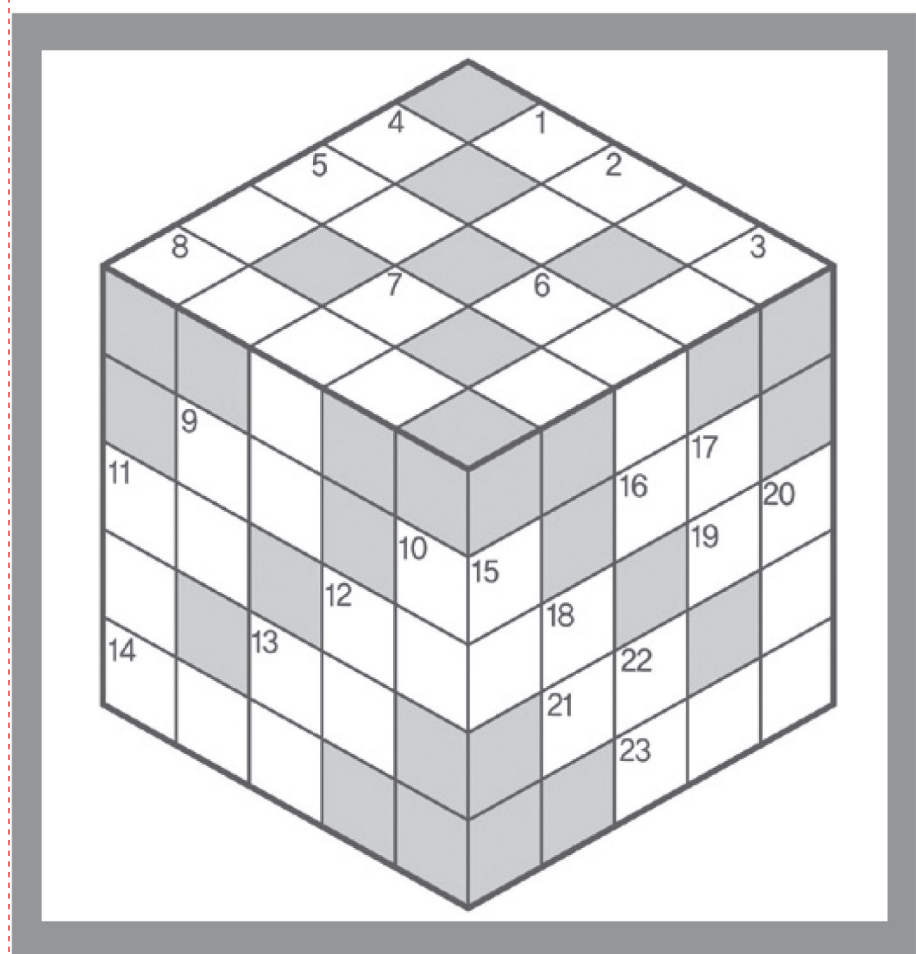
윤세웅 원장 (교정사)

약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5년 개업 운영
한국 교정학회 지도위원
대한 합기도 검무관 캐나다부분 사범
현,세기 척추교정의료원 운영

TEL: (403)289.8285 FAX: (403)338.1808 #312A - 3630 BRENTWOOD ROAD N.W. CALGARY AB. T2L1K8

윤세웅 척추신경의는 미국내 굴지의 각종 운송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정치료를 하는 실력있는 척추신경전문 의입니다.

{ 심심풀이 낱말풀이 }



<가로 열쇠>

- 1)비단에 수를 놓은 듯이 아름다운 산천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비유한 말.
- 5)범위 · 규모 · 세력 등을 늘려서 넓힘. 도로 ○○ 공사.
- 6)몹시 애타게 기다림.
- 8)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드리는 기도.
- 9)매우 중요한 근거지. 적의 ○○을 무너뜨리다.
- 10)푸른 빛깔의 자기.
- 11)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 12)오늘의 성인 아재 개그, 예전에 산울림이 불러서 히트했던 '아니 벌써' 라는 노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13)바둑 · 장기 · 무예 등에서 수가 높음. 또는 그 사람.
- 14)여럿이 기세를 올리며 악을 써 지르는 소리.
- 16)빌려 주거나 꾸어 줌.
- 19)신문 · 잡지 따위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 스포츠월드 ○○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21)자신이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운명.
- 23)일 년 내내 잎이 늘 푸른 나무.

<세로 열쇠>

- 2)상을 받음.
- 3)산은 자줏빛으로 선명하고 돌은 맑다는 뜻으로, 산수의 경치가 썩 좋음을 이르는 말.
- 4)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음.
- 7)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 9)동기간이나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형만 한 ○○ 없다.
- 10)결혼하기를 청함.
- 11)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 12)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건강 색. ○○가 흰하다.
- 13)높은 목소리.
- 15)아들의 아내. 며느리.
- 17)여행을 해서 생긴 병이나 피로.
- 18)본업 외에 따로 갖는 직업.
- 20)바둑에서, 자기 돌을 자기가 지은 집 안에 놓아 스스로 자기의 수를 줄이는 일을 이르는 말. ○○○를 두다.
- 22)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정답은 B면 11페이지에..



오늘의 역사 (2003년 8월 14일) 미국-캐나다 동부 대규모 정전 사태



뉴욕 등 미국 북동부와 토론토 등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 14일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뉴욕 등 대도시의 도시 기능이 한동안 마비되는 위기를 겪었다.

15일 아침 현재 전기 공급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 사태는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나이아가라폭포 인근 지역에서 시작돼 미국 뉴욕·뉴저지·코네티컷·매사추세츠·버몬트주 등 북동부 지역과 미시간·오하이오주 등 중서부 지역,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으로 번져갔다.

이번 정전으로 해당지역 주민 약 5000만명이 불편을 겪었으며, 뉴욕시민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미국 내 5개 공항과 캐나다 2개 공항에서 비행기 이착륙이 한때 금지됐으며, 미국 내 4개 주의 9개 원자력발전소도 가동을 중단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뉴욕 증시는 정전 직전 장이 끝나 피해가 없었다. 캐나다 오타와와 뉴욕 브루클린에서 산발적인 약탈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전을 틈탄 무질서는 거의 없었다.

사진설명: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한 2003년 8월 14일, 석양을 배경으로 미국 뉴욕시내가 암흑 속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이번 정전 사태로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놀란 주민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 그해 오늘 무슨일이... (8월 14일)
- 2015년 '삼성 창업주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별세
 - 2010년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세계 프로야구 최다연속경기(9회) 홈런 기록 수립
 - 2005년 8·15 민족대축전 남·북통일축구경기
 - 2005년 민족대축전 北대표단 국립현충원 참배
 - 2005년 한산대첩 학익진 413년만에 재현
 - 2000년 남북, 서울-판문점-평양 첫 광통신망 개통
 - 2000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4년 만에 재가동
 - 2000년 '원곡체' 창안한 서예가 김기승씨 별세
 - 1999년 덴마크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전장 16km)완공
 - 1998년 대한민국 50년 '우리들의 이야기전' 화려한 개막
 - 1994년 불가리아의 소설가 카네티 사망 - 1981년 노벨문학상 수상
 - 1989년 국사학의 태두 이병도 박사 타계
 - 1989년 보타 남아공 대통령 사임
 - 1989년 트랜지스터 개발한 공학자 윌리엄 쇼클리 사망
 - 1989년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취임
 - 1988년 문성길 WBA 밴텀급 세계챔피언 획득
 - 1986년 파키스탄서 정치폭동. 야당총재 부토 체포
 - 1986년 서진롭살롱 집단살인 사건

Quote 영어 문장을 완성하라

Rearrange the words below to complete the quotes.

MOVING WALK FLY CRAWL WALK KEEP

"If you can't _____, then run. If you can't run, then _____. If you can't _____, then _____, but by all means, _____."

-Martin Luther King Jr. 정답은 '이주의 영어한마디' 맨 밑에..

이주의 영어 한마디

소떼가 홍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는 모습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그 소들은 본토 태생 토박이가 아니라 (be not native inhabitants of the mainland) 폭풍우에 휩쓸렸다가 8km를 헤엄쳐 건너온 섬 출신으로 밝혀졌다.

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는 물에 뜨게 돼 있고, 물에 뜨면 수영을 하게 돼 있다고(float and swim) 한다. 어미에게서 수영을 배우는(learn to swim)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다(can do so from birth). 개만 개헤엄을 치는(do the dog paddle) 것이 아니라 고양이와 양의 경우에도 물은 싫어하지만(despite their dislike of water) 생사가 달린 비상 상황이 닥치면(confront a life-and-death emergency) 나름의 방법으로 헤어나간다.

그런데 인간과 비슷하다는 침팬지와 고릴라는 수영을 못한다. 다른 포유류는 물에 뜨면서 코가 자연스레 물 밖으로 나오는데, 유인원(anthropoid)은 코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입을 밖으로 돌려 숨을 들이마시는(breathe in) 방법을 배우지만, 침팬지와 고릴라는 새끼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

Answers: "If you can't fly, then run. If you can't run, then walk. If you can't walk, then crawl, but by all means keep moving."

'비 오는 날 소꼬리 같다(cow tail on a rainy day)'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는(at normal times) 쇠파리라도 쫓을 수 있어 유용하지만(be useful), 비 오는 날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be good for nothing) 거 추장스럽기만 하다는(be cumbersome) 말이다. 하지만 이는 홍수에 떠내려 가더라도(be swept away by a deluge) 소꼬리만 잡고 있으면 살아남을(live to tell the tale)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소는 근육질 덩치에 느릿느릿 움직이는 육지 포유동물(be muscular and lumbering land mammal) 이어서 금세 물에 잠길 것 같지만 웬만해선 익사하는(be drowned to death) 경우가 드물다. 육중한 체구가 물에 뜨고, 수영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만 타고난 본능과 능력(natural instinct and ability)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목동들이 소떼(herd of cattle)를 강 건너, 호수 건너 물이 깊어 방목할(put them out to pasture) 수 있는 것이다.

소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도 수영한다. 한 번에 50km 가까이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끼리의 코(trunk)가 원래 잠수 중에 물 밖으로 연결해 숨을 쉬는 자연 발생적인 관으로 진화한(evolve as a natural snorkel)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소는 물을 싫어하지 않는다. 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더위와 흡혈 곤충들(blood-sucking insects)인데, 물은 한꺼번에 두 가지 골칫거리를 해소해주기(get rid of both of them) 때문이다. 먹을 풀이 많은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나, 체온을 식히고 물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in order to keep cool and avoid biting insects) 물에 몸 담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황폐화시키고(wreak havoc on the Bahamas)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다. 그런데 '도리안'이 휩쓸고 지나간 대서양 시더 아일랜드의 소들 중 3마리가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풀을 뜯고 있

'국민차 시조새' 1990년대 누비던 티코의 귀환

20대도 찾는 단종(斷種) 20년 '티코'

6월 25일 서울시 평창동 북악스카이웨이. 1997년식 분홍색 티코를 타고 가파른 도로를 내질렀다. 23년의 나이를 먹은 만큼 낡은 가솔린 엔진이 진동음을 냈다. 하지만 796cc라는 배기량이 무척할 만큼 힘이 좋았다. 140cm 높이의 낮은 차체는 오히려 안정적인 드라이빙에 제격이었다. 장박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 기분 좋은 엔진 소리, 티코의 안정감까지, 완벽한 드라이브였다.

이날 기자에게 드라이브 경험을 선사한 분홍 티코는 직장인 김황(40)씨 소유다. 김씨는 지인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한 대가로 3년 전 50만원에 티코를 구매했다. 정비부터 튜닝까지 김씨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김씨는 "2001년 잠시 탔던 티코가 tvN 드



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 등장해 다시 그리워졌다"면서 "차가 오래됐으니 정비나 관리에 더 신경 쓴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씨처럼 티코를 다시 구매하는 '자동차 마니아'가 늘고 있다. 티코는 대우자동차 산하 대우국민차에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한 한국 최초의 경차다. 국내에서 실제 운행되고 있는 티코는 현재 400여 대뿐. 매물은 관리

상태에 따라 150만에서 400만원까지 가격이 오르는데 상태가 좋은 것은 하루도 안 돼 팔린다. 최근 동호회 카페에 올라온 1996년식 빨간 티코는 12시간도 안 돼 판매됐다.

인스타그램에 '#티코'를 검색하면 1만4000개의 게시글이 올라온다.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 '티코' 후기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도로에서 만난 티코를 찍어 올린 게시글에는 "흰색 티

코를 각설탕이라 놀린 기억이 난다"라는 추억 담긴 댓글이 달려 있다. '#국보급' '#티코 발견' '#보호하자'라는 해시태그도 달려며 오래 함께하자는 덕담도 있다.

단종 20년을 맞은 티코가 여전히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티코를 소유하거나 티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티코 오너스 클럽(T.O.C)을 만나 이유를 들어 봤다.

◇인기 포인트 1 | 20세기 로 시간 여행하는 추억의 국민차

"이것이 국민차, 이것이 티코"

과거 국내 최초 경차로서 장점을 내세운 티코의 다양한 광고가 등장했다. 배우 김혜수씨와 이영범씨가 등장했던 1991년 출시 당시 광고도 화제였다. "손님, 차비 주셔야죠?"라는 김혜수씨에게 이영범씨는 가벼운 볼 뺨뺨을 남긴다. 차비조차 뺨뺨면 충분할 만큼 연비가 좋다는 이야기였다. 티코의 공인 연비는 수동 24km/L, 자동 18km/L다.

티코는 1991년 출시된 해에만 3만 대가 팔렸다. 당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425만 대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준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적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후 경차 전성시대를 이끌며 마티즈·아토스·비스토 등 다른 경차와 함께 16만 경차 시장을 만들었다.

국민차라는 명성답게 티코 보유자는 저마다의 추억이 있다. 회사원 이계훈(37)씨는 수동 기어가 그리워 1996년식 수동 티코를 구매했다. 이씨는 "어머니가 티코로 학교를 데려다 줬다"면서 "당시 어머니 티코가 수동 4단이어서, 지금 타는 티코를 수동 4단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예스럽지만 촌스럽지 않다. 창문을 손잡이로 돌리는 티코 모델은 특이한 인기가 있다. 3년 전 해당 모델을 구매한 최성욱(34)씨는 "창문을 손잡이로 돌리는 방식은 고장이 안 난다"면서 "조금 불편해도 그게 오래된 티코의 매력"이라고 했다.

◇인기 포인트 2 | 젊은 사람도 클래식 디자인 좋아

최근 자동차 마니아 사이에선 올드카 특유의 각진 외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 기술의 집합체인 전기차 디자인으로 각진 외관이 등장할 정도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기차 디자인으로 공개한 EV 콘셉트카도 각진 앞모습으로, 과거 포니를 닮았다. 티코도 같은 이유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심지어 티코 국내 생산이 중단된 이후 태어난 2000년대생도 티코를 찾는다.

2001년생으로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허민(19)씨는 티코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꿈꿨던 티코를 사려고 아르바이트 중이라는 허씨는 도로에서 티코를 발견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 간직한다.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는 티코 사진이 가득하다. 허씨는 "자동차 정

▲ 6월 25일 서울시 평창동에서 만난 티코 오너스 클럽(T.O.C) 회원 7인. 모두 형형색색의 티코를 몰고 왔다.

비를 배우고 있는데, 티코를 사서 직접 복원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했다.

기타리스트 장혁진(27)씨는 본인보다 두 살 형인 1991년식 은색 티코를 타고 다닌다. 장씨는 작은 올드카를 찾다가 티코에 관심을 가졌다. 마음에 드는 티코를 찾자 1년 넘게 인터넷 카페에서 매물을 기다리다 지난 5월에야 티코를 구입했다. 30대 초반에 티코를 구입한 최성욱(34)씨 역시 "오로지 티코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라며 "아담한 사이즈에 각진 외형이 좋다"라고 말했다.

◇인기 포인트 3 | 튜닝과 정비는 필수 '나만의 에디션'

튜닝으로 나만의 티코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예스러움을 유지한 순정파 티코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티코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꾸민다. 도색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비용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에 이른다. 티코 캣값과 맞먹는 다. 차가 오래돼서 내부 정비도 필수다.

정성 어린 튜닝과 정비를 거친 티코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차'가 된다. 이계훈씨는 티코를 마을버스 초록색으로 도색했다. 친구가 티코를 광역버스 주황색으로 도색한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마을버스 티코는 티코 마니아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T.O.C. 회원 사이에서 '갈색 수염'이라고 불리는 정동용(37)씨는 본인 티코에 독특한 애칭인 '구지와라티코'를 붙였다. 전 주인이 일본 자동차 문화 '이니셜 D'에 나오는 두부 가게 '후지와라 두부' 문구를 티코에 붙여둔 것이 시작이다. 스티커를 제거했지만,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이를 본따 '구지와라티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사진작가 하동진(37)씨는 자신의 노란색 티코를 '노티'라고 부른다. 그의 양 손날에는 도색 전후의 티코가 각각 새겨져 있다. 허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정비를 다 하고 관리하니 지식 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내년이면 티코 출시 30주년이다. T.O.C.는 30주년 자축 파티를 열 계획이다. 권영섭(35) T.O.C. 대표는 "모두가 공감하고 추억할 수 있는 차로 티코가 오래도록 기억되면 좋겠다"라면서 "추억을 나눌 아버지 세대 회원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 페루의 노란 택시를 연상시키는 하동진씨의 '노티(노란 티코)' 내부.



▲ 김황씨의 분홍 티코 내부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다.



▲ 도색 전후 티코를 양 손날에 새긴 하동진씨. 오른쪽이 도색 전, 왼쪽이 도색 후다. / 하동진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수칙:



관할 공중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르십시오.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삼가하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은 삼가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 (약 2m)를 실천하십시오.

증상

코로나19의 증상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며, 바이러스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발열
(38°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지 않도록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노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이들은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습니다.



의료전문가에게 미리 연락하여 방문 여부를 상담하거나, 관할 공중보건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증상이 악화될 경우 담당 의료제공자 또는 공중보건당국에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정보:

☎ 1-833-784-4397

@ canada.ca/coronavirus